



**3월 30일**

# **팔레스타인의 땅의 날**

3월 30일은 '팔레스타인 땅의 날'입니다. 1976년 3월 11일,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(현재 이스라엘 북부) 지역 영토를 강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에 항의하는 거대한 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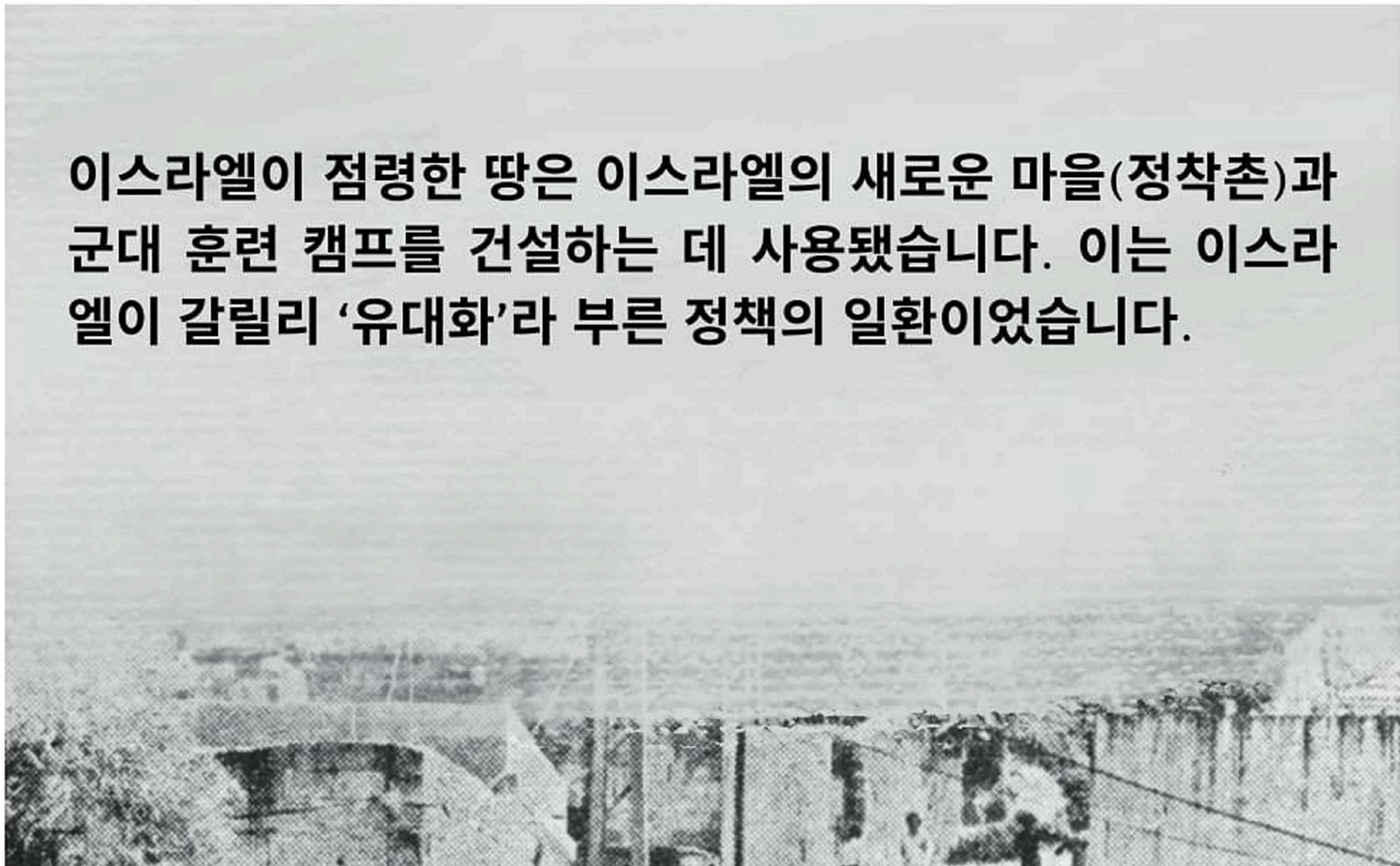


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벌어졌고, 3월 30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습니다. 팔레스타인인 6명이 살해됐고, 100명 넘게 부상당하고, 수백 명이 연행됐습니다.





**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마을(정착촌)과 군대 훈련 캠프를 건설하는 데 사용됐습니다. 이는 이스라엘이 갈릴리 '유대화'라 부른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.**











**이스라엘의 영토 점령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희생을 기리며 '팔레스타인 땅의 날'이 지정되었습니다. 매년 3월 30일에는 이스라엘의 불법점령**



에 항의하는 시위가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.





# 귀환 대행진

2018년 3월 30일, 가자지구 국경 지대에서 '귀환 대행진'이 시작되었습니다. 매주 열린 이 시위는 20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. 시위대는 이스라엘 건국 때 쫓겨난 난민들의 돌아갈 권리를 요구했습니다. 이스라엘은 이 시위를 (주로 저격수를 배치해) 잔혹하게 탄압해, 팔레스타인인 최소 223명을 살해했습니다. 그중 46명은 18세 미만이었습니다.





지금도 이스라엘은 인종청소를 자행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고 학살을 벌이고 있습니다. 유엔에 따르면 최근 두 달 동안 서안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 군사 공격으로 인해 주민 강제 이주가 계속되고 있고,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 행위가 증가해 2년 동안 2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쫓겨났습니다.









# 49주년 땅의 날

올해 49주년 땅의 날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항의하고,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희생을 기리고자 합니다. 또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팔레스타인의 온전한 해방을 요구할 것입니다.





